

순교자들과 함께 하는 참회예절

시작성가 : 가톨릭 성가 286장, "순교자의 믿음"

주례자 : 예절에 대한 설명

우리 아버지 하느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죄인들로서 함께 모여왔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공동 고백과 하느님의 용서에 대한 각자의 체험은 하나의 공동체로서 우리를 더욱 가깝게 연결해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의 양심을 더욱 심화시켜 주며 아마도 우리 자신에 의해 보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도 눈을 뜨게 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개인고백을 능가하는 참회예절이 주는 유익한 점입니다. 더욱이 오늘의 참회예절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온 우리 순교자들과 함께 한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주례자 : 시작기도

하느님 아버지, 우리가 결코 우리 죄를 변명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당신 용서의 선물로부터 도망하지 않게 하여 주소서. 당신은 어느 누구도 저버리는 일이 없으시며 길을 잃고 헤매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을 받아들이고 용서해주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순교자들과 함께 용서를 청하고자 모여 왔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의로움도 없사오나 순교자들의 믿음을 보시어 용서하여 주시고 당신이 오늘, 또 언제나, 그리고 영원히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보여 주소서.

신자 : 아멘.

제 1 독서 :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옥중 서간

“내가 잊을 수 없는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이 험한 시기에 쓸 데 없이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밤낮으로 천주의 도움에 힘입어 세 가지 원수, 즉 세 가지 욕정과 싸우고, 박해를 인내로 견디어 나가면 천주의 영광을 위하여, 남아 있을 이들의 구원을 힘쓰십시오. 박해의 때는 천주의 시험입니다. 세속과 마귀를 이김으로써 덕과 공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재앙으로 인하여 겁을 내지 마시고, 용기를 잃지 말고 천주를 섬기는 데에서 뒷걸음을 치지 말며, 오히려 성인들의 뒤를 따라 교회의 영광을 더하고 여러분이 주님의 참된 군인이고 선민이라는 것을 보여 주십시오. 비록 여러 사람일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애덕을 잊지 마시고, 서로 참고 서로 도우며 천주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실 때를 기다리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더 쓰지 못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여러분을 모두 천국에서 만나 함께 영원한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간절한 인사를 드립니다.

김 대건 안드레아 신부

추신 :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천주의 명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모든 것이 천주께로부터 오는 상이나 벌입니다. 박해까지도 그의 허락으로만 오는 것이니 참을성 있게 또 천주를 위하여 견디십시오. 다만 당신 교회에 평화를 돌려주시도록 눈물로 간청하십시오. 내 죽음은 물론 여러분에게 타격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영혼은 슬픔 속에 빠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천주께서는 여러분에게 나보다 나은 목자들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슬퍼 마시고 천주를 큰 애덕으로 마땅하게 섬기도록 힘쓰십시오. 애덕으로 결합하여 있습니다. 그러면 죽은 다름에 우리는 영원히 결합하여 있을 것이고 영원히 천주 대전에서 누릴 것입니다. 천만번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응송 : 가톨릭 성가 445 "예수님 따르기로"

복음 : 요한 21, 15- 19

청원기도 : 아버지이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뉘우침의 은총을 베풀어주시길 간구합니다.

- 주여,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직시할 수 있는, 그리고 비판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하여 주소서.

* 응답 :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 주여, 우리를 치밀함과 천박함으로부터 지켜 주시고 좌절과 냉담한 양심으로부터도 지켜 주소서.

- 주여, 우리가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던 일이나 실망했던 일에 얽매이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상처 입은 당신과 우리자신들을 감싸안음으로써 당신의 사랑을 맛 볼 수 있게 하소서.

- 주여, 진리의 밝은 빛으로 우리 삶의 실체를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보여 주시고 또한 삶의 실체가 드러날 때의 고통을 용기 있게 견디어 낼 수 있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해 주시는 하느님의 사랑이 항상 모든 예식의 근본이 되게 하소서.

- 주여, 우리가 당신의 사랑을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안에서 위안을 얻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안에 깊이 침잠하여 당신의 은총과 자비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소서.

- 주여, 우리가 서로를 더욱 깊은 참회예로 이끌게 하시고 당신 이름으로 모이게 될 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소서.

- 주여, 우리를 용서하소서. 우리는 너무나 자신답지 못했습니다. 좋아하는 것들과 싫어하는 것들이 때때로 우리 각자의 양심보다 더 크게 우리에게 작용했으며 우리존재의 가장 깊은 근원을 찾기보다는 그 표면에 머물렀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의 당신의 섭리하심을 구하려고 하기보다는 당신의 거룩한 뜻에 상처만을 입혔으며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내면의 고요한 환경을 당신께 마련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평화와 기쁨을 전하기는커녕 오히려 불안과 불만을 전했습니다.

- 주여, 우리를 용서하소서. 우리는 매우 쉽게도 우리의 기도를 깨끗이 잊어버리고는 기도하는 것이 전혀 필요하지 않았다고 변명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현존안에 참으로 고요히 머무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소서. 우리는 게으름으로 낭비한 시간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는 오락 때문에, 그리고 잠자는 것과 시간상의 문제로 거의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당신앞에 나타났었습니다.

- 주여, 우리를 용서하소서. 우리는 때때로 계획들에 대한 변화나 불편들을 고맙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으름(너무 게을러서 잠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너무 느려서 도와 주지 못하는)을

부러왔습니다. 그리고 달갑지 않은 계획과 임무들은 뒤로 미루었으며 어떤 때는 너무 오랫동안 미루어 두었기 때문에 이미 더 이상 어떻게 손쓸 수조차 없게 된 때도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대화는 천박하고 피상적이었으며 우리 삶의 심연을 진정으로 찾으려고 하지 않았 습니다.

- 주여, 우리를 용서하소서. 우리의 모든 무가치한 생각들,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들, 공정치 못한 비판과 내면의 불만, 그리고 마음속에 품었던 음란한 생각과 우리가 알게 모르게 키워 왔던 낙심과 우울함을 용서하소서.
- 주여, 우리를 용서하소서. 고독한 순간에 당신께로 향하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소서.
- 주여, 우리를 용서하소서. 우리의 무모한 발언들과 거친 말들, 그리고 경솔한 의견들과 우리 가 말했던 거짓말들과 반쪽만의 진실들을 용서하소서.
- 주여, 우리를 용서하소서. 상황이 그것을 요구할 때 우리가 말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소서.
- 주여, 우리를 용서하소서. 우리는 때때로 파벌을 형성했습니다. 공동체안에 불화의 씨를 뿌렸 으며 수다를 떨어서 사람들을 서로 다투게 만들었고, 사람들을 자주 의심했습니다. 또한 공동 체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진리를 손상시켰으며 죄를 지음으로 해서 우리 공동체가 당신이 기대하는 것보다 못한 것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완고함과 단정치 못한 행동으로 어떤 누군가를 공동체로부터 떠나가게 했습니다.
- 주여, 우리를 용서하소서. 우리는 때때로 우쭐했으며 스스로 중요한 사람이 되고자 했고 우위를 차지하고자 했으며 위신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실하지 못했으며 실체는 일치하 지 않으면서 외관상으로만 유사하게 되고자 했습니다. 또한 스스로 인기를 얻고자 했으며 평 판때문에 의로운 사람이 되고자 했습니다.
- 주여, 우리를 용서하소서. 우리는 신앙에 대해 거의 열의를 보이지 않았으며 건실하게 사는 보통사람을 통해서 우리 동료들의 눈에 비친 복음의 진정한 의미와 그리스도의 진면목을 옳 게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명에 대해 불성실했으며 이기심으로 인해 소 명과는 전혀 부합되지 않는 것을 우리의 소명안에 포함시키고자 했습니다.
- 주여, 우리를 용서하소서. 우리가 매우 사치스럽게 살았다면, 우리가 이 세상이 필요로 하는 도움에 대해 마음을 달았다면, 그리고 더욱 부유해지고 우리 생활기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 회 채신운동을 남용했다면 그것은 우리의 욕구들과 욕망들을 공동체보다 우위에 두었던 것입 니다. 우리는 자신의 욕망들을 더욱 진전시키기 위해 부당한 방법을 사용했으며 섬기는 대신 에 지배하고자 했습니다.
- (독신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 주여, 우리를 용서하소서. 우리는 독신생활을 충실히 살 아가고자 하지 않았으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과 생활을 가득 채우려 하지 않았습 니다. 또한 우리는 그 대용품과 그 보상을 얻으려 함으로써 우리에게 돌보도록 맡겨진 이들 에게 독신의 깊은 의미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 주여, 우리를 용서하소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의사와 하느님 성령의 더 깊은 뜻에 자신을 거의 개방하지 않았습니다.
- 주여, 우리를 용서하소서. 우리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뜻뜻미지근한 자세로 삶을 살았으며 그 근본 정신에 따라서 살기보다는 형식에 집착하며 살았습니다. 또한 사물들을 있는 그대로 놓 아두지 않았으며 새롭게 시작하기 위한 용기도 갖지 못했었습니다.
- 주여, 우리를 용서하소서. 이 밖에도 우리가 범한 잘못들, 즉 다른 사람들에게 위안과 도움을 주지 못했던 일과 그들의 고통을 보지 못했던 일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거부했던 일과 우 리를 갈망하는 당신의 소리에 귀기울여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일들을 용서하소서.

주례자 : 기도.

하느님, 우리는 자신의 나약함과 죄들을 인정하며 그 용서를 청하는 공동체의 한사람으로서 당신 앞에 나왔습니다. 당신을 외면하고서는 자신의 천박하고도 거짓된 자아에 눈을 돌렸던,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갖는 총만한 힘과 능력을 약화시키려 했던 많은 과오의 순간들에 대해 이제 진심으로 뉘우칩니다. 우리의 불성실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으며 그들에게 복음이 의미하는 진정한 깊이를 보여 주지 못했습니다.

잠시 침묵중에 반성한다.

신자 : 가톨릭 성가 403 “가난한 자입니다” (공동고백으로서)

주례자 : 마침기도

전능하신 천주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신자 : 아멘

주례자 :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천주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풀으시고 사하소서.

신자 : 아멘

주례자 : 전능하신 천주여, 우리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순교자들의 믿음을 돌아보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영광과 권세와 나라가 당신의 것이오니 오늘로부터 영원히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은총을 허락하시고 지켜주시며 당신의 빛나는 얼굴을 뵈옵게 하시고 은총과 평화를 베풀어 주소서.

신자 : 아멘

퇴장성가 : 가톨릭 성가 175장 “이보다 더 큰 은혜와”

<한국순교자영성연구소 홈페이지에서>